

#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이의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

동국대 종합연구소 개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한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



수불 스님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안국선원 선원장 겸 이사장, 불교신문사 사장,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1975년 범어사에서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자유 스님으로부터 사미계 수지, 1977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음.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대학교과) 졸업. 1979~1989년 제방의 선원에서 참선 안거, 1989년 안국선원 개원하여 참선 지도, 1997~2003년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2005년~현재 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 상임이사, 2006~2008년 불교언론문화상 대표를 지냈다.

동서양의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 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자리에서 간화선 실천에 관한 강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8월 20일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간화선의 실제와 세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수불 스님은 강연에서 실천자 입장에서 간화선 수행방법을 소개하고, 선지식의 역할과 간화선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수불 스님의 기조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 1. 간화선의 의의

선은 본래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실체를 등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어지혜와 무명업식이 본래 없음을 밝힘으로써, 단도직입으로 진리당처의 핵심의미를 드러나게 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인연 있는 이들에게 참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에게 물려주신 이 심전심의 선법은 28대 조사인 보리달마에 의해서 6세기 초 중국으로 전해졌다. 보리달마가 전한 선법은 역대 조사를 통해 면면히 계승됐고, 당대(唐代)에 이르러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역대 조사들이 종생들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을 바로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명안종사는 법을 물어오는 제자에게 지사문의(指事問義)와 기봉방학(機鋒棒喝)의 방법으로 지도해 정법의 안목을 체득케 했다. 이러한 문답들이 어록으로 기록되고 전승돼, 송대(宋代)에 이르러 1700 본칙공안으로 정형화됐다.

조사선은 그 뿌리를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육조 혜능(六朝慧能; 638~713)에 의해 제창됐다. 육조계서는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을 직시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록 깨치는 돈오견성을 천명하였다. 이후 조사선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과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을 거치면서 육조 문

화에서 배출된 수많은 선승들에 의해 전성기를 맞았다.

조사선의 언하변오(言下便悟) 전통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퇴색되자, 남송시대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는 현성공안에서 의심되어진 화두를 참구토록 한 간화선을 제창했다.

간화선은 눈 밝은 선지식이 믿음을 낸 이로 하여금 화두 참구를 통해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돈오케 하는 수행법이다. 공안이 어록에 기록된 선대의 선문답이라면, 화두는 특정한 공안이 공부인의 내면에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응집된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전해오던 본칙공안이 공부인의 내면에서 의심을 일으켜 활구 화두가 되면, 혼침과 산란 및 온갖 역순경계를 물리치고 오로지 본래면목을 밝히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간화선은 조사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행법의 원리는 동일하다. 수행자는 의심에 걸려야 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몸에 꽂 차면, 시절인연 따라 타파되면서 돈오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선지

식이 공안을 통해 공부인에게 화두를 걸어 주고 결국 타성일편된 의단이 타파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간화선 수행이 오늘날 수행자에게 잘 맞다고 할 수 있다.

### 2.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공안에서 비롯된 의심이다. 공안이 어록이나 공안집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1700여 깨달음의 기원들이라면, 화두는 선지식께서 공안을 통해 공부인으로 하여금 의심케 한 것을 말한다.

공부인은 스스로 의문을 일으키게 한 공안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화두가 들려지게 된다. 이처럼 공안에서 비롯된 화두에 집중해야 한다. 화두가 제대로 들려져서 의심이 일어나면 활구(活句)가 된다. 곧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지만 생가지도 않는 의심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거나, 화두가 잘 들려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밀어붙인다면 모두 사구(死句)인 것이다. 활구 의심인 화두가 역순경계에 관계없이 동정(動靜) 가운데 들려진다면 의심하려 하지 않더라도 화두가 들려지는 의정의 상태가 형성된다.

화두의 불꽃이 치성해지면, 공부인의 몸과 마음도 극단으로 치달아서 마침내 화두가 타성일편 되어 의단이 독로하게 되고, 시절인연 따라 무명업식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원리대로 공안에서 비롯된 화두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야 간화선 수행이다. 이렇듯 간화선은 공안상에서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선지식의 역할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연만 닿는다면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길은 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안종사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 중도실상을 논한 분이다. 공부인이 법에 대해 물어올 때, 눈 밝은 선지식은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일으키게 한 원인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번뇌가 불타고 있는 한, 아무리 지식을 채우고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고통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모두 번뇌 망상 속의 일에 불과할 뿐이다. 선지식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화두공부를 통해 번뇌가 본래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지식만 만나면, 이 공부의 반은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 간화선

수행의 승패는 전적으로 선지식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간화선 수행의 실제

1) 활구 의심이 걸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참의심'을 할 수 있을까? 공안 상에서 의심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화두에 걸려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안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갑갑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다. 그 갑갑함이 커져서 화두를 들고 공부하려는 의지 속에서 살펴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활구를 들고 빠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활구가 들려 공부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더라도, 마치 여울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뱃사공처럼 힘이 든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 마치 밝은 해를 불록렌즈로 비춰서 볼을 얻듯이 조점을 맞춰 집중해야 한다. 고인들은 이 일을 마치 쥐를 잡으려고 만들어진 물소 빨로 된 밧 속으로 쥐가 먹이를 찾아 들어감에 꼭 끼어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들어진 소등에 붙어서 주둥이로 계속해서 뚫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처럼 화두를 들자마자 처음부터 앞뒤가 짝 맞아서 어떻게 해보 수 없는 인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 번 물면 이빨이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절대로 놓지 않는 사나운 개처럼, 화두를 한 번 들면 일념만 년이 되도록 지독한 마음을 가져야 의심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다. 물이 한 번이라도 100도로 끓어 넘쳐야지, 중간에서 오르내리기만 한다면 오랜 시간을 공부해도 깨달음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치가 이렇게 때문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철두철미하지 않고서는 결국 사구만 들고 앉아 있게 된다. 설혹 처음부터 활구를 들고 의심을 했어도 그 의심을 키우지 않고 들려진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지켜보지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화두공부는 마치 팬이를 칠 때, 정중동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치듯이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공부인이 '활구를 들었느냐, 사구를 들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정직하지 않고서는 공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 화두 의심이 의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참의심이 한 줄기로 꿰어지면,

마침내 강력한 정신적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알 수 없었던 근본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활구의심을 했더라도 신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신적인 벽을 가깝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앞의 경우라면 바로 벽을 향해 부딪쳐 가면 되겠지만, 뒤의 경우라면 용맹심이 발해질 때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몸으로 그 벽을 향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화두에 집중하면 할수록 어느덧 화두를 내려놓을 수조차 없게 된다. 고봉원도 화상은 <선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하고 의심함에 그 의심이 힘 달리는 곳에 이르면, 그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케 되며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서 한 조각을 이루어 털끝만한 틈도 없게 될 것이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으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마치 물살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 같아서 전혀 힘들이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힘을 얻는 시절이다.

이때는 화두를 스스로 보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공부가 저절로 향상하게 된다. 이때 공부인은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 채 저절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의정상태가 되면 힘을 쓰지 않아도 화두가 잘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인은 마치 화두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비유하면 알약을 한 번 삼키면 약기운이 몸속에 퍼지듯이, 화두 기운이 이미 몸속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독 속에 든 절름발이 자라가 도망가지 못하듯이, 화두가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하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된다.

화두가 힘들이지 않고 잘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번뇌 망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려 하지 말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두고 화두에 집중하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의정이 동정 가운데 하루 종일 흠어지지 않고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때, 즉 호처(好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들려진 화두를 잘 호치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

3) 의단 독로가 되어야 한다  
화두의심이 의정화 되고, 의정이 마침내 의단이 독로하게 된다. 마치 감옥에 갇혀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이리지도 저

## 사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 청평 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딱 막힌다. 마치 독약에 중독된 것처럼 숨통이 막히고, 사방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옥죄어올 것이다.

고봉원도 화상은 <선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하고 의심하여 안과 밖이 한 조각이 되게 하여 온종일 털끝만치도 빈틈이 없어서 가슴에 몽클한 것이 독약에 중독된 것과 같으며 또 금강권(金剛圈)과 울극봉(栗棘蓬)을 삼켜 꼭 내려가게 하려는 것과 같이 하여 평생의 갖은 재주를 다 부려서 분연히 힘쓰면 자연히 깨질 곳이 있을 것이다.

금강권은 가슴이 의단으로 꼭 묶어서 온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강한 기운이 사방에서 짓누르는 것을 말한다. 울극봉은 의단이 몽쳐서 밤송이처럼 목구멍에 걸린 것을 말한다. 그것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니, 숨통이 막혀 감잡히기 짝이 없게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삼킬 수도 없는 밤송이를 삼키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덧 의단만이 홀로 드러나는 경계로 들어간다. 화두 공부에 익어 의단이 독로되면, 눈이 있어도 봉사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된다. 딱 막힌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이르러서도 처음부터 해운, 답을 찾는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간(看)해야 된다. 오직 화두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절인연 따라 은산 철벽이 무너짐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4) 화두 참구 시의 주의사항

막상 화두를 들고 일념만만 하다보면, 엄청난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 공부를 방해하는 마군들이 있어, 공부인이 중간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겁을 먹고 화두의심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봉원도 화상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때는 싸우는 것처럼 뜨겁게 소란하며, 어떤 때는 얼음처럼 싸늘하게 멍청하며, 어떤 때는 나귀를 끌고 우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며, 어떤 때는 물결 따라 돛을 퍼는 것 같고, 이 네 가지 산란, 혼침, 역경, 순경의 마구니가 번갈아 서로 해치므로 드디어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잃고 살림을 잃게 한다.

이런저런 경계 현상들은 모두 자기 업식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달라지기 쉽다. 크게 의심하고 크게 공부할수록, 방해도 따라서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방해가 일어날지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사실이다. 간화선의 생명은 오로지 화두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화두가 성성하면, 잠도 사라지고 산란심도 없어진다. 머리에 불은 불을 끄듯 간절하게 화두를 참구할 때 어떤 수마와



8월 20~2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간화선은 참의심 통해 깨달음 얻어  
의문 일으킨 자기자신을 살펴야  
마음길... 魔 강하고 法은 약하다  
화두 잘 들리는 때라도 조심해야

산란심, 그리고 역순경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마치 여울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는 강하고 범은 약해서, 어떤 기운이 자꾸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역경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오히려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만일 화두 공부를 하기 전의 상태였다면 힘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라면 천군만마 속을 단기필마로 죽기살기로 돌파 하듯이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다.

한편 맑고 고요해서 화두가 잘 들릴 때라도 문득 일어나는 경계에 고달라지면 자칫 화두를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앉아서 자주 쫓다거나 고요함에 머물게 되면 무기(無記)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잘된다고 생각할 때 더욱 조심해서 화두를 간(看)해야 한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경전상의 연구가 이해된다거나 불보살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부를 방해하는 허망된 모습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부 중에 일어나는 병통은 화두를 집중하지 않는 데서 온다. 간절하게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점경이다.

5. 불속에서 연꽃이 피다

의단이 독로하여 시절인연이 오면 순간적으로 의단을 타파하게 될 것이다. 그 통쾌함은 직접 맛본 사람만이 안다. 큰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딱 막혔던 속이 텅 비게 된다. 온 몸과 마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앞뒤가 툭 터져 한없이 시원해진다. 고봉원도 화상은 <선요>에서 이때를 이렇게 묘사했다.

“곧 허공이 무너지고 대지가 꺼져 사물과 내가 함께 없어진 것이 마치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텅 비어서 맑고 고요한 것이 끝 간 데가 없었다. 당장에 혼이 날아가고 낮이 흩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는데, 그때 온몸이 기뻐함이 마치 120근의 짐을 벗어 버린 것과 같았다.

화두가 타파되면, 마치 소나기가 내린 뒤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뽀뽀 드러나듯 확연한 것이 시원하고 통쾌하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분명해진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공부상의 인연들이 드러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곧바로 선 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부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흐름에 맡겨 세월을 잘 보내야 한다. 늘 부끄러움을 아는 수행자로서 자세를 낮추고 정진하다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6. 선의 르네상스

오늘날 세계는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지구촌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정신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선을 통한 여유로운 삶을 전세계인들과 나눌 수 있는 시절인연을 불러왔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IT 시대는 선의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IT 전문잡지 <와이어드>의 창업자인 케빈 켈리는 '마음 비움' 이야말로 미래 경영의 키워드라고 강조한다. 21세기를 열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어느 분야에 서건 리더가 되려면, 급변하는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일수록 자기 전문지식에 가려 새로운 사회 현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일어나는 그대로의 현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의 힘을 기르는 일은 비단 리더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선불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인류를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정신적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의식을 통해 근본을 밝히는 간화선은 부처님이나 신을 무조건 믿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의식을 통해 깨달음의 눈을 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오늘날 인류는 더 큰 눈을 뜨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세계로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땅에서 고스란히 보존해온 간화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 명품이다. 간화선 수행을 통해 세계인들이 무명을 밝히고,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절인연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최고 지성인들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인들이 간화선 수행을 배우려 한국으로 물러올 날이 머지않았다. 이번엔 동국대에서 열리는 간화선 국제학술대회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리=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선(禪)

금년 여름은 장마가 끝났어도 폭염 대신 연일 비가 내리니 권태를 느낄 만도 하다. 그 어린 시절의 여름밤이 그리워진다. 여름밤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머리 위에서 별들의 향연을 볼 수 있다. 누군가가 광기가 넘쳐 값진 보석을 천상에 흩뿌려 놓았을까. 반짝이던 별빛을 보며 소년의 꿈은 영글어 갔다.

별은 그리운 얼굴들이 아니던가. 연지(蓮池)에 핀 소담한 연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직 수줍어 얼굴을 다 드러내지 않고 문설주에 기대어 모습을 반쯤만 드러낸 소녀 마냥 보이기도 했다. 연기를 좋아하는다는 모기를 쫓기 위하여 보리끼기를 한 옴름 뒤뚱뚱에 올려놓으면 주변은 연기로 뒤범벅이 되고 눈물이 짙짙함 그칠 줄 모른다.

요사이 남산을 걷는 것을 건강 유지 비결쯤으로 생각하며 걷고 있다. 장마가 심술을 부려 산행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가 오고 난 끝에 산길은 정말 그 맛이 다르다. 산의 향기가 비리 한듯하기도 하고 옥잠화의 꽃향기가 서리서리 풍겨 문득 발길을 잡기도 한다. 이런 때면 자연의 맛을 맡겠 느끼고 자 심호흡을 해 본다. 아니다. 심호흡마저도 물욕(物慾)이 과한 것이 아닐까 하여 이내 멈추기를 반복한다.

수행이란 무엇일까. 행실이나 학문 따위를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불도를 닦는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사전적 의미로만 수행을 이해하려고 하면 확언치 않다. 범어로 pratipatti 가 수행이다. 동사는 pratipad로 '당도하다, 얻는다'는 뜻이다. 명사의 뜻으로는 '확인'이나 '지식'의 뜻을 얻어 행해졌는지를 안다'는 뜻이 훨씬 명료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옛부터 인디언들은 환상여행(vision quest)을 한다고 한다. 혼자서 일정기간 동안 자연의 품에 안긴다고 한다. 그 속에서 위대한 신비를 맞이하고 환희를 맛본다는 것이다. 그 다음 고착화된 기성 세계의 진리를 넘어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정신과 육신의 탁기(濁氣)를 씻어내는 정화작업으로 세상의 신비로운 체험을 만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정신과 육신의 탁기(濁氣)를 씻어내는 정화작업으로 세상의 신비로운 체험을 만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정신과 육신의 탁기(濁氣)를 씻어내는 정화작업으로 세상의 신비로운 체험을 만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있었다. 요기는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한 수행방법이었다. 해탈이라는 자기만족을 위한 수행을 뛰어넘어 석존의 수행은 번뇌에 찌들고 병든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고 인력하게 이끄는 방법을 생각한 수행이었다.

선은 사유수(思惟修)라 하기도 하고 정려(靜慮)라 하기도 하는데 구역(舊譯)과 신역의 표현이다. 선나(禪那)는 음역이다. 선이란 말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은 찬도가 우파니샤드(Chandogya Upanishad)이다. 여기에서 선(Dhyāna)은 만유원리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속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dhi'는 '심사숙고하다'이고, 'ya'는 '들어간다'이며, 'na'는 '나타나다'이다. 종합해보면 '깊은 명상에 몰입하면 제법실상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동사는 'dhyai'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다.

뱃사람은 많은 고기 잡을때보다 뱃전에 섰을때 더 행복해한다

<사기> 봉선서(封禪書) 편에 천자가 지내는 제사를 봉선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봉은 사방의 흙을 높이 쌓아 제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선은 땅을 정하게 하여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산에 제사지내는 것을 기원(禋祀)이라 하고, 하천에 제사지내는 것을 부침(浮沈)이라 하였다.

몇 일간 장마에 누전이 되어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었다. 잊고 살았던 발명왕 에디슨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송명(松明)이라도 밝혀 어둠을 퇴치할 수 있었지만 그런 관솔도 흔치 않은 세상이 되었으니 촛불에 의지할 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 불현듯 안식(眼識)에만 신경 쓰고 걱정하는 인간의 단편적인 삶에 조소를 보낸다. 의식(意識) 즉 마음의 무명에는 대책을 세우는 일 등 속절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인간은 현상에 매몰되고 마는 존재인가 의문을 던지게 된다.

뱃사람이 행복했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닌 뱃전에 올라섰을 때라고 한다. 중생의 고뇌를 치유하기 위해 고행했던 석존의 모습에서 한없는 경이로움과 자기정화를 실감한다.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DoM NAVER**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